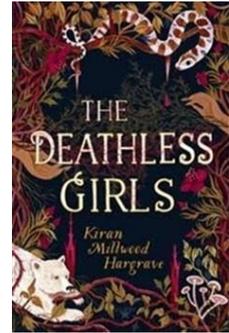


## FICTION

제목 : THE DEATHLESS GIRLS  
가제 : 드라큘라의 신부들, 그들의 이야기  
저자 : Kiran Milwood Hargrave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19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에서는 가려져 있었던 뱀파이어 신부들 대한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어둠의 판타지.

곧 열일곱 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 소녀 릴리와 그녀의 쌍둥이 자매 키지는 극악무도한 발카르 백작의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 날 이후, 복수와 사랑, 자매애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쌍둥이 자매인 릴리와 키지는 달이 새빨간 핏빛으로 물들었던 어느 밤에 동시에 태어났다. 사람들은 붉은 달을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지만 릴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어쩌면 붉은 달의 의미는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둘 중 한 명에게는 축복의 상징이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저주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키지는 분명 자신이 축복을 받은 쪽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릴리 역시 키지가 손금에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차라니처럼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차라니 역시 키지에겐 분명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릴리는 집안의 여자들처럼 공을 훈련시키는 '우사리' 정도라도 될 수 있다면 그나마 행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여행자 마을에서는 열일곱 번째 생일을 신성한 날로 여겼다. 이 날은 바로 차라니가 자매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 주게 될 날이기도 했다. 덕분에 둘은 신성한 날의 전야를 기념하기 위해 집 대신 그 날 밤은 특별히 캠프에서 보내게 되었다. 릴리와 키지는 캠프로 돌아가기 전 캠프 사람들을 위한 요리에 쓸 버섯을 따다. 릴리는 자기보다 앞서 캠프로 가는 숲길을 향해 걸어 가고 있는 키지의 늘씬하고 성숙한 몸매를 보며 질투심을 느꼈다. 바로 그 때였다. 릴리는 무언가 불에 타고 있는 듯한 냄새를 맡았고 엄마가 기르고 있는 곰 알부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캠프에 도착하자 알부의 울음 소리 말고도 다른 끔찍한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마을의 모든 것들이 화염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 아래 붉은 수건을 두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키지는 바로 그 남자에게 달려가 그가 들고 있는 횃불을 빼앗았다. 그러자 그 남자는 키지를 발로 마구 걷어차기 시작했다. 릴리는 나무 막대로 그 남자를 내리쳤고 키지를 일으켜 세웠다.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다른

남자들은 불 타고 있는 차라니의 마차를 둘러 싸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릴리는 그 때 한 손이 그 칼에 닿는 것을 보았다. 그 손은 다정한 손길로 릴리를 어루만져 주던 차라니의 손이었다, 쓰러진 차라니 곁에는 다른 여자들의 시체도 놓여 있었다. 자매는 서둘러 엄마와 남동생 캠을 찾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문이 바깥에서 잠긴 채로 불타고 있었다. 릴리와 키지는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엄마와 동생을 구출할 방법이 없었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릴리는 알부에게 달려가 그를 풀어주었고 놀랍게도 알부가 품속에 안고 있던 동생 캠을 발견했다. 릴리는 알부에게 캠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라고 명령했고 캠은 재빨리 동생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곧 검은 옷을 입은 험악한 사내들은 두 자매와 마을 소년 소녀들을 곧 우리에 가뒀버렸고 마차에 그들을 실었다. 소년 소녀들은 이 사내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곧 마차의 틈새로 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이 하나 보였고 사내들은 마차에서 남자 아이들만 내리게 했다. 사내들은 누군가와 흥정 문제로 한참 실랑이를 벌이더니 소녀들을 모두 그에게 팔아 남겼고 자매를 포함해 여덟 명의 소녀들만 남겨진 마차는 다시 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의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에 진홍색 장갑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한번도 햇볕을 쬐 적이 없는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차가 성 앞에 도착하자 베르스키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차의 문을 열고 소녀들을 끌어내렸다. 붉은 성문이 열리자 말롭스키라는 성의 하녀장이 나타났고 소녀들을 성 안으로 안내했다. 말롭스키는 소녀들에게 얼굴을 씻으라고 명령한 뒤 쌍둥이인 릴리와 키지의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그녀는 키지에게 노골적인 태도로 손결을 잃지 않았는지 물었고 손에 간 밤에 생긴 화상 흉터를 보자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하지만 말롭스키는 쌍둥이인데다가 아름다운 외모까지 갖고 있는 릴리와 키지를 신비로운 매력있다고 생각했고 키지에게 사나운 기질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벨레스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둘의 몸값을 그에게 내밀었다. 말롭스키는 이제 두 소녀의 운명은 오직 이 성의 주인인 발카르 백작의 손에 달려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릴리와 키지는 말롭스키의 지시에 따라 백작의 취향에 맞게 머리를 곱게 빗고 이 성의 사람들처럼 검은 옷을 입었다. 소녀들은 곧 하녀장의 명령에 따라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에서 혹독한 주방 일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릴리는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끌림을 느끼게 된 동료 노예 미라를 만나게 되었다. 미라는 지친 릴리를 위로 해주었고 언젠가 차라니가 들려주었던 무시무시한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릴리와 키지는 열 일곱 살 생일, 즉 신성한 날을 온전히 보내지는 못했지만 곧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알게 된다. 소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페미니즘적인 시선으로 드러클라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매력적인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 (Kiran Milwood Hargrave)는 시인이자 극작가로 『The Way Past Winter』, 『The Girl of Ink & Star』 등의 소설은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제목 : THE SHARK CALLER  
가제 : 상어를 부르는 소녀  
저자 : Zillah Bethell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20년 7월 9일  
분량 : 33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중국, 러시아 판권 계약 완료**

**\* 너무나 다른 두 소녀가 만나 상어의 위협에 맞서 바다 속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블루윙은 마을 외곽에서 그녀의 후견인이자 샤크 콜러인 시링겐과 살고 있었다. 블루윙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 악명 높은 쏘크라는 상어의 공격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블루윙은 복수를 위해 시링겐처럼 샤크 콜러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전통에 따라 여자는 결코 샤크 콜러가 될 수 없었다. 게다가 시링겐조차 블루윙이 복수를 하기엔 마음 속에 여전히 너무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며 그녀를 말리는 상황이었다. 아름다운 파푸아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소녀의 모험담이다.

블루윙은 시링겐과 함께 영국에서 왔다는 한 남자와 카누에 앉아 있었다. 시링겐의 직업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상어를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시링겐은 마법의 언어로 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국인은 그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고선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곧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시링겐의 주문을 들은 어린 상어 한 마리가 카누 가까이까지 온 것이다. 상어는 시링겐이 설치한 밧줄에 걸렸고 상어가 물 위로 튀어 오르자 영국인은 그 상어를 죽이자고 했다. 하지만 시링겐의 말에 따르면 상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만 사람을 공격했다. 블루윙은 영국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바다로 들어가 상어를 어루만졌고 아무도 모르게 그 상어를 풀어주었다. 다시 카누 위로 돌아왔을 때조차 그 영국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시링겐은 유유히 그 곳을 떠나는 상어를 보며 가끔 강한 상어들을 저렇게 우리 손을 벗어나고 달려들다. 왜 자꾸 상어들이 시링겐의 그물망을 벗어나는지 모르는 마을 이장은 상어 고기를 맛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며 불평했고 이제 일흔 다섯이 된 시링겐이 가진 마법 같은 능력이 나날이 약해져 간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시링겐은 서양인들이 자신의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와 죽은 상어를 마치 트로피처럼 전시하기 위해 상어를 도둑하려고 하는 그 어두운 욕망을 받아 들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들의 입맛대로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 또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늦은 밤 집까지 찾아온 마을 이장은 곧 산호초를 연구하는 한 미국인 교수가 딸과 함께 이 마을에 올 테니 요리부터 청소까지 그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해주라고 엄포를 놓고 갔다. 한편, 다음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악몽을 꾸다 일어난 블루윙은 해변가에 이미 그 교수 부녀의 짐들이 속속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웬일인지 모두 전통 의상까지 차려 입고 나온 마을 사람들이 짐을 옮기는 일을 돕고 있었고 블루윙은 그 부녀가 블루윙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녀가 살았던 오두막집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마을 이장이 하고 많은 빈집들 중에 왜 하필이면 자기가 살았던 집을 그 미국인들에게 빌려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블루윙은 시링겐을 따라 이제는 미국인 교수의 집이 된 그 오두막에 아침 식사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아틀라스 하멜린이라는 이름 가진 그 교수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지만 꽤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예쁜 원피스를 차려 입은 그의 딸, 메이플은 한 열두 살 정도 되 보이는 블루윙의 또래였다. 블루윙은 자신만큼이나 투명스러워 보이는 메이플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메이플에게 섬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교수와 시링겐은 배를 타고 바다를 둘러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떠났고 블루윙은 메이플을 찾아갔다. 하지만 메이플은 자신은 이 섬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루를 보내고 어른들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기가 생긴 블루윙은 메이플을 위해 거짓 이야기 따윈 지어내기 싫다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녀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블루윙이 그녀의 방 앞에서 짐이 떠나가도록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자 메이플은 그제서야 블루윙의 말대로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블루윙과 메이플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진 소녀였다. 둘 다 영어를 쓰긴 했지만 블루윙은 메이플은 이해하지 못하는 파푸아식 영어를 섞어 썼고 메이플처럼 학교에 다니며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둘은 어른들이 바다로 나가 있는 동안 매일 같이 만나서 마을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출입이 금지된 버려진 터널을 탐험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었다. 블루윙은 메이플이라면 자신을 잘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부턴가 하멜린 교수는 자신의 연구 분야인 산호초가 자리지도 않는 먼 바다까지 나가려고 했고 시링겐은 그를 의심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메이플 역시 아빠의 침실에서 완전히 봉쇄된 의문의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 상자에 아빠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확신 했다. 그 상자를 열 방법을 고민하던 메이플은 드디어 그 열쇠를 찾아냈고 블루윙과 그 상자를 여는데 성공했다. 상자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사진이 가득했다. 그 자료들은 보물을 잔뜩 싣고 호주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침몰한 일본 제국 해군 항공 모함에 대한 것이었다. 두 소녀는 하멜린 교수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가 침몰한 자리에는 분명 블루윙의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상어 썩쓰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찾아 바다로 떠나기로 한다. 두 소녀의 모험은 어떻게 될까? 블루윙은 부모님을 위한 복수를 실현할 수 있게 될까? 환경과 인간 그리고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종도 환경도 너무나 배경을 가진 두 용감한 소녀의 모험담이다.

#### <저자소개>

질라 베델 (Zillah Bethell)은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태어나 여덟살이 될때까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A Whisper of Horses』, 『The Extraordinary Colours of Auden Dare』 등의 저자이다.